



사진/서천군

100일 만에 되찾은 웃음

서천특화시장 입주상인들은 밤새 화재로 매장이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뜬눈으로 지켜봐야 했다. 이 불로 292개 점포 가운데 227개가 전소되면서 생계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석달여 만인 지난 4월 25일 특화시장 인근에 55억원을 투입해 수산동(2700㎡)과 일반동(1589㎡)의 임시시장이 문을 열었다.

충남도와 서천군 등이 지원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성금 등으로 버텼던 상인들은 고객들을 맞으며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다. 한 상인은 “불이 난 뒤 한달여 간 잠을 못 자고 생겼는데, 시장 개장을 앞두고도 며칠 간 잠을 못 이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상인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성원해 준 충남도와 서천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는 내년 7월까지 400억원을 들여 전국 최고수준으로 서천특화시장을 재건축할 계획이다.

/도정신문팀

‘보령-대전 아우토반’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

동서축 연결 1시간 50분→1시간내 가능
11월까지 최적 직선 고속도로 검토
국가계획 반영·조기 건설 행정력 집중
균형발전,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남도가 보령과 대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대전에서 충남 서해바다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충청권 동서축 고속도로망 조기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돌입했다고 밝혔다.

보령-대전 고속도로는 충청 동서축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서해안 접근성 향상, 관광산업 및 물류 활성화, 균형적인 중부권 동서 고속도로망 구축 등을 위해 추진 중이다.

도는 보령-대전 고속도로를 국가계획에 반영, 충청 내륙민들에게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대전해수욕장을 비롯한 서해의 푸른 바다를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령-대전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순환방사축(보령부여축)으로 반영된 상태다.

고속도로 구간은 보령과 부여, 논산, 계룡 등을 거쳐 대전까지 연장 70km로, 사업비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보령-대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전시민이 자동차를 타고 대전해수욕장을 가려면 공주와 청양 등을 지나는 국도 등을 이용, 막힘 없이 달려도 1시간 50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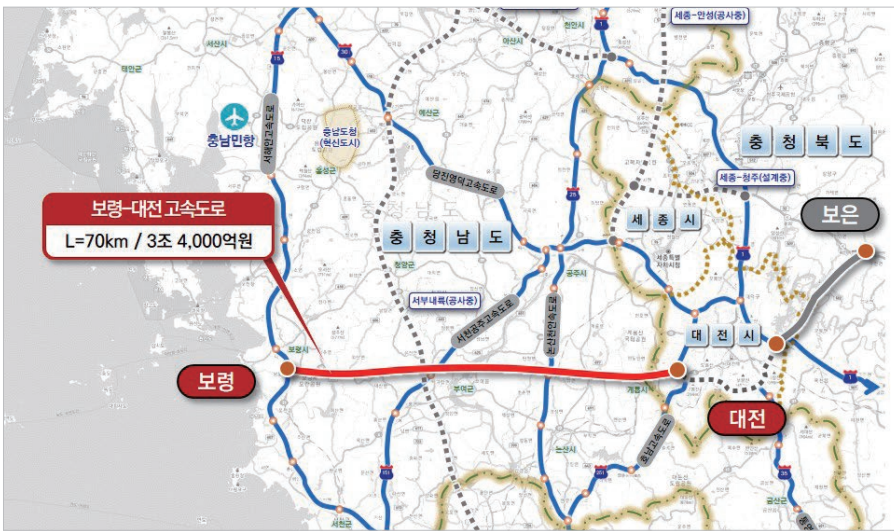
도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 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분석 등을 실시하고, 최적의 노선을 찾을 예정이다.

충청 내륙에서 서해안까지의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 직선 고속도로’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논리 등도 찾는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보령-대전 고속도로는 동서축 이동 거리와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며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뒷받침하는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74



보령-대전 고속도로 노선도.

충청남도
도정신문

충남도정신문 가정의 달 이벤트!

행복한 우리가족 사진 콘테스트

가족들과 함께한 즐거운 한때를 공유해 주세요~
사진과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를 함께 적으면 당첨 확률 UP!!

이벤트 기간 2024. 5. 3.(금)~5. 20.(월) 당첨자 발표 2024. 5. 23.(목)

참여방법

-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 촬영하기
- 게시물 내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 사진 제출

※ 충남도정신문 지면과 블로그에 이벤트 당첨자 사진이 게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정신문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배달의민족
상품권
20,000
20명

블로그 바로가기



민선8기충남도정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농산물 판로 확장	3면
가정의 달, 가볼만한 곳	7면
충남의 종가	8면
문화달력	11면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그린암모니아 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

45kW급 암모니아 연료전지 개발
2028년까지 94억원 투입

충남도는 4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충남이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도는 특구 지정에 따라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천안, 보령, 금산 일원에 94억원(국비 59억, 도비 25억, 민

자 10억)을 투입해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를 조성한다. 사업은 ㈜에프씨아이가 주관하며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중부발전, ㈜케이세라셀, ㈜아이원, ㈜트윈에너지가 사업자로 참여한다. 이번에 발굴한 사업은 연료전지 내에 직접 암모니아를 공급해 열반응 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실증이 완료되면 국내 순수 기술이자, 세계 최초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기술로 상용화시킬 수 있다. 도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에 직접 공급해 45kW급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하고, 사업

화 지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4년까지 천연가스 연료전지를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로 대체할 경우 약 570만톤 가량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역 중 한 곳인 보령에서는 총사업비 5조원(민자)을 투입, 중부발전 보령발전 본부에 SK E&S 블루수소 플랜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육성과 041-635-3929



전국 선도 벼 직파재배 중심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4월 25일 서천군 서천읍 일원에서 ‘벼 직파재배 연사회’를 열고, 건담·무논·드론 직파 기술 연시를 보고 벼 직파재배 성과를 공유했다. 벼 직파재배는 못자리 설치와 기계이앙 작업 없이 논에 바로 볍씨를 뿌리는 농법으로, 담수 여부와 파종 방법에 따라 건담직파, 무논직파, 드론직파로 나뉜다. 벼 직파재배는 현재 농업 현장에서 겪는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난의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61

내년도 국비 11조 확보 강행군

도정 현안 정부예산 반영 요청
선도사업 국가정책화 추진도

충남도는 1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찾아 주요현안 건의 및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토부를 찾아 ▲3차 고속도로(보령-대전) 건설계획 반영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제6차 국토·국지도 계획 반영 ▲민자고속도로(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8건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KTX) 연결 30억 ▲대전-당진 고속도로 2360억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1900억 등 6건 1조 659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에는 ▲농업인 기준 개편 ▲스마트팜 정부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 11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억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건립 59억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시범모델조성 52억 5000만 ▲농촌융복합 개발 6억원 등 4건 14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는 주요 현안인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건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예타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예타선정)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기업지원 고도화 25억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사업 54억원에 대한 예타선정 및 정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해수부에는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에 아산항 개발 포함 주요 6개항 현안사업 반영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3억원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충남형 청년어촌보급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예산담당관 041-635-3174

아산 경찰병원 예타 대상사업 선정

신속예타절차 적용 첫 사례

충남도는 550병상 규모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2024년 제3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속예타 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시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신속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타수행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2022년 12월 신속예타절차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적용된 첫 사례에 해당하며, 올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교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수용을 계기로 추진, 2022년 12월 최종 후보지로 아산이 선정돼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서 ‘신속 예타’ 취지 경찰복지법 개정안 가결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아산 경찰병원은 아산시 경찰종합타운 내 국유지 8만 1118㎡에 국비 4329억 원을 들여 24개 진료과, 550병상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유치과 041-635-3372

중앙아시아 교류·협력 확대

2~8일 카자흐·우즈베크 방문
수출상담·고려인 동포 협력

충남도가 경제영토와 지방외교 무대를 중앙아시아로 본격 확장한다. 실크로드가 통과하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케이(K)-제품’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고려인 재외동포 및 현지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폭도 넓힌다. 도는 5월 2일부터 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 3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첫 일정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를 찾아 양 지방정부 협력과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국토 면적이 272만 4900㎢로, 우리나라(10만 431㎢)의 27배에 달하며, 인구는 2022년 기준 1970만 명,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258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1440달러다. 알마티시는 700㎢로 당진시 면적(705.5㎢)과 비슷하고, 인구는 191만 명으로 충남(213만 1309명)보다 약간 적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다. 1927년부터 199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여서 현재도 ‘남부의 수도’로 불리며,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도가 현지에 마련한 수출상담회를

찾아 충남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이어 고려인 재외동포인 신안드레이 신라인그룹 회장을 만나 충남 농수산물 현지 유통 확대와 양국 경제인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1995년 설립한 신라인그룹은 중앙아시아 콜드체인 기업으로, 연 매출 1억 달러에 달한다. 이 기업은 특히 편의점 전문 법인인 ‘씨유(CU) 센트럴아시아’를 설립하고, 비지에프(BGF)리테일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지난 3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CU 1호점 문을 열었다. 5일에는 알마티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찾아 빅토르박 하원의원을 접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의 4배가 넘는 44만 8978㎢에 2022년 기준 인구 3600만 명, 국내총생산(GDP)은 803억 달러다. 실크로드 문명의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은 특히 석유와 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고려인 재외동포 1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6일 도는 페르가나주 청사를 방문해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7일에는 페르가나에서 타슈켄트로 이동해 사리포프 콘그라트바이 아베짐 베타비치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장관을 접견하고, 유-엔터(U-ENTER) 창업센터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5

스마트농업 수도 충남

그래픽 | 이용

한눈에 살펴보는 스마트팜 창업

④ 스마트팜 창업지원 단계별 과정

2022~2026 841.3ha
(경영실습형·창업준비형·창업지립형)

① 스마트팜 조성

정체 단계별 영농 계획별
종합분석 및 맞춤 솔루션 제공

② 창업 컨설팅

✓ 전문 교육과정 운영
✓ 멘토·멘티 도제형 실습
✓ 스마트팜 부지 제공

③ 맞춤형 창업 지원

④ 스마트팜 신속 부담 완화

✓ 대금 분할 납부
✓ 비용 할인

⑤ 금융 지원

✓ 청년농 융자 및 이자 지원
(농협·하나은행 연계)
✓ 무담보보증(충남신보 연계)

⑥ 유통 지원

✓ 품목별 판로 확대
✓ 유통 인프라 확충
✓ 국내외 마케팅 지원

2022~2026 청년농 3,000명 육성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대기업과 손잡고 충남 우수 농산물 급식메뉴로

도-CJ프레시웨이 상생 협약 양파·감자·마늘 등 유통 확대

충남도가 스마트팜 산지 농특산물 등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확대 및 다양한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4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씨제이(CJ)프레시웨이와 충남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씨제이(CJ)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 1위 기업으로서 외식 및 급식업체에 식자재를 유통하고 있으며, 전국 산업체·병원 등에서 단체급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이를 활용한 메뉴 개발 등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충남산 농특산물 계약재배와 매입 확대 노력 ▲농특산물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 ▲마케팅 활동 지원 ▲농특산물 활용 신메뉴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 협력 등이다.

도는 이번 씨제이(CJ)프레시웨이와의 협약을 통해 신선 원예농산물 200억 원 매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통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유통 품목은 양파, 감자, 마늘, 대파, 딸기, 배, 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씨제이(CJ)프레시웨이는 전국 단체급식장에 서산 감자, 부여 수박 등 도내 농특산물 및 도내 '맛집' 음식을 활용해 개발한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앞으로도 추가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별 농특산물 주산지가 담긴 '충남 농산물 지도'를 주요 단체급식장에서 전시·홍보한다.

앞으로 도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위한 스마트팜 등 산지 발굴을 지원하며, 농협은 통합물류 및 통합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농특산물 공급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가는 입점 품목 생산에 집중하고 신규 품목을 제안하는 등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한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65

한눈에 살펴보는 충남우수농산물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배, 포도, 오이	밤, 오이, 수박	양송이, 강낭콩, 오이	배, 오이, 쪽파	양파, 감자, 달래, 마늘	딸기, 수박, 상추, 토마토	고구마, 감자, 양파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깻잎, 상추, 인삼	양송이, 멜론, 수박, 토마토	블루베리, 수박	멜론, 고추, 표고버섯	마늘, 딸기, 고추	쪽파, 토마토	고구마, 달래, 냉이, 마늘

“어르신, 농사 대신 지원금 받으세요”

정부 은퇴직불금+도 추가 지원
1ha당 연 1100만 원 최대 10년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 본격 시행한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토지의 청년농 제고를 통한 안정적 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은퇴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도 추가 지원금을 더해 1ha당 연간 1100만 원을 최대 10년 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농업인에게 1ha 기준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업인의 영농유지 시 수익을 감안, 정부 사업의 실효성 도모를 위하여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 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ha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 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외에 1ha당 연간 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 씩, 1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한다.

참여 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농업정책과 041-635-4017

바다의 반도체 '김' 신규 양식장 개발

기존 면적보다 15% 이상 확대

충남도는 해외시장에서 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김 원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올해 기존 면적 대비 15% 이상 신규 양식장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4월말 기준 도내 물김 생산량은 807만 3000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으며, 생산금액은 231억 9000만원으로 104.6% 증가했다.

김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 침체 및 국제 공급망 재편(러시아 전쟁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내 수산식품 총 수출액 증가를 견인할 정도로 해외시장 수요가 급증했다.

지난해 도내 수산식품 총수출액은 2억 21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으며, 이 중 김(마른김, 조미김)은 1억 8413만달러로 21.5%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국적



김 양식장.

으로 2700ha 규모의 김 양식장 신규 개발 계획을 밝혔으며, 도는 15%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김 양식장 규모는 3820ha이며, 새로운 양식장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생산량은 296만 1000속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고수온에 적응하는 광온성 김 개발을 연구중에 있으며, 향후 현장에 분양·보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과 041-635-4136

아이를 낳으면 책임지는 충남
충남형 풀케어 정책

아이돌봄, 주거지원, 사회인식 개선, 육아환경 개선

아이? 맡겨주세요
24시간 365일 완전한 돌봄

0~5세: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6~12세: 초등돌봄 시간 연장 및 인력 확대 지원
13~18세: 공립학원 설치 민간위탁 운영

집? 걱정말아요
충남 풀케어 주거지원

도시리브투게더, 임산·출산가구 특별공급 100% 확대
맞벌이 소득기준 폐지
농촌리브투게더 우선 공급
다자녀가구 기준 3인→2인 조정

내포신도시에 반려동물산업 종합기반시설 조성

전국 첫 ‘원-웰페어 밸리’ 공모 선정
2027년까지 국비 등 400억 투입
충남대 내포캠퍼스와 사업 연계

충남 내포신도시에 전국 최초 반려동물산업 종합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도는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을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과 연계 추진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내포신도시에 전국 최초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증 종합기반시설이 구축된다.

앞서 도와 충남대는 지난 2월 19일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하면서 원-웰페어 밸리 연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는 내포캠퍼스가 문을 여는 2027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00억원 등 총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캠퍼스 내 2만 8950㎡ 부지에 ▲반려동물용

제품 실증 ▲연구개발 ▲양육·수의 ▲기업지원 중심의 원-웰페어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실증 분야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최고의 복지환경 속에서 기업 등이 개발한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기호성·영양성·동작성 등에 대한 실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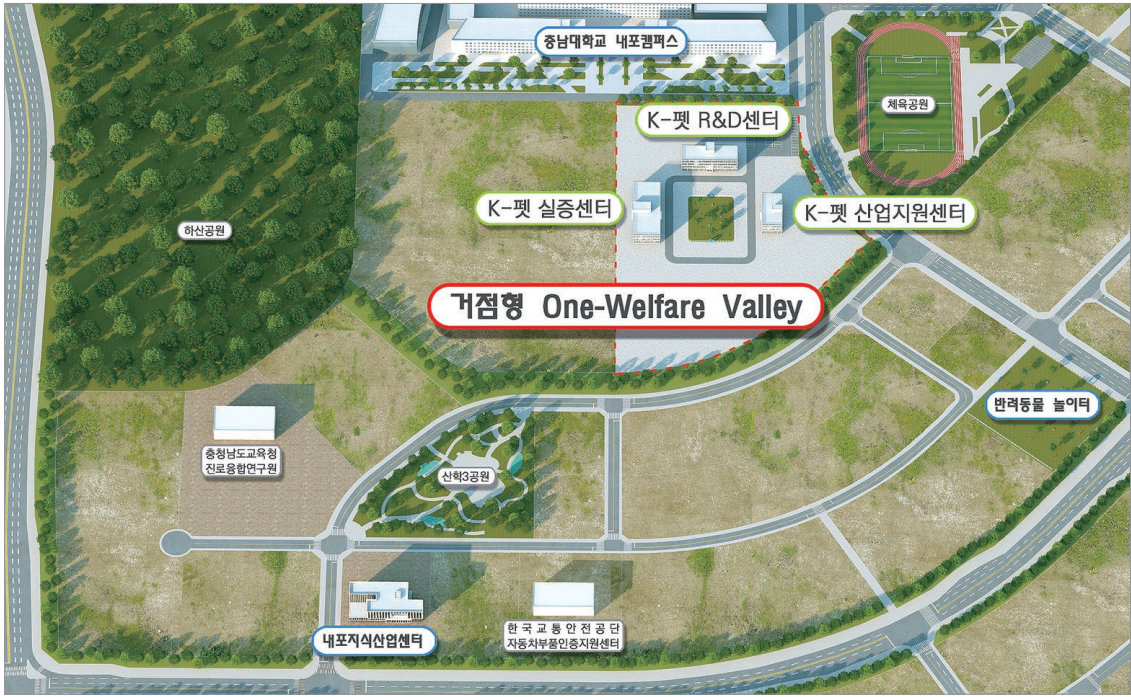
연구개발 분야는 도입이 어려운 고가 특화장비 이용 및 이용자 교육 지원과 시제품 제작·기술 지원·전문가 매칭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업지원 분야는 반려동물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창업, 수출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도와 충남대는 내포캠퍼스 ‘수의그린융합계열(수의방역·동물보건학과)’과 원-웰페어 밸리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더불어 내포신도시 완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반려동물 헬스테크 시험평가인증센터’를 구축해 반려동물 헬스테크 제품의 시험평가 인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성군 은하면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감도

문화센터를 비롯한 반려동물 연관시설과 우수한 산업기반을 연계해 홍성군을 명실상부한 반려동

물 연관산업 메카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육성과 041-635-2252



두점박이사슴벌레 보전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4월 30일 국립생태원, 한국곤충산업중앙회 충남지부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두점박이사슴벌레 보전 및 생태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곤충생물자원인 두점박이사슴벌레를 보전·육성해 생태 가치를 확산하고 분양 및 전시·홍보를 통해 지역 농가 소득을 증대할 계획이다. 두점박이사슴벌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와 중국, 몽골, 타이완 등에 분포해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326

도정게시판

벼 종자 생산 파종 시작

충남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논산분소는 벼 종자 생산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 증식종 등 19 품종을 6월 중순까지 총 5회에 걸쳐 종자 파종에 나선다.

이번에 파종하는 종자는 원원종 9품종, 원종 6품종, 지역특화 품종(도 육성 품종)을 포함한 증식종 4품종 등이다.

이 가운데 ‘바로미2’는 쌀 소비 촉진과 용도 다양화에 특화된 쌀가루 전용 품종이며, ‘안평’은 최고품질 품종으로 밥맛이 우수하고 쓰러짐과 병에 강하다.

파종작업은 먼저 염수선(소금물 침지)을 통해 충실한 종자를 선별하고 자체 개발한 종자소독법(60℃ 온탕소독, 하루 침종, 48시간 약제소독)을 적용해 카다리병 등 종자 전염 병해충을 방제한 후 실시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301

우수 어촌계 지원 선정 공모

충남도는 5월 31일까지 ‘2024 충청남도 우수 어촌계 지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민·귀어인 등 신규 어촌계원을 유치해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과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며, 신청은 시군 및 지구별수협에 지원신청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시군이 관할 어촌계의 실적 평가 점수를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한 후 결과를 도에 제출하면 도는 시군과 합동평가를 거쳐 고득점 어촌계 5곳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도·시군 평가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7월 중 전국에서 총 20곳을 선정해 1곳당 1억원을 지원한다.

/어촌산업과 041-635-4841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충남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661

올해는 발굴 대상을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도민의 경제활동(영업 운영, 취·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확대 운영한다.

건의사항은 도 누리집(행정·법무행정·규제개혁 내 신고센터)을 이용하거나 우편(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행정팀), 전화(041-635-3136)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건 중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관련 사례는 소관부서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법률과 시행령 등 중앙부처 관련 사례는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이들 과제는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정책기획관 041-635-3136



119 외국어 통역봉사자 위촉

충남소방본부는 4월 25일 신규 119외국어 통역봉사자 6명의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

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119종합상황실 통역봉사자들을 통해 러시아,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154건의 외국어 통역을 지원했다.

도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119신고 접수 시 통역봉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현재 16명의 통역봉사자를 연말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상황요원, 통역사의 3자 통화 훈련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도 지속한다.

류진원 충남119종합상황실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들이 119에 손쉽게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661

힘센충남
대한민국의힘

2024
충남 사회조사

도민에게 힘이 되는 충청남도를 만듭니다

조사목적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간

인터넷 조사 2024년 5월 7일 ~ 5월 20일 방문면접조사 2024년 5월 7일 ~ 5월 27일

조사대상

15,000 표본가구 (만15세 이상)

응답혜택

소정의 답례품 증정

조사내용

총 11개 분야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여가와 문화, 사회통합, 도정특성 등)

※ 통계법 제 18조에 근거한 조사로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 관

충청남도

조 사

설계/분석

GLOBAL RESEARCH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ou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빵빵데이’ 천안 빵 맛 입소문

딸기·밀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 인기
빵지순례, 베이킹 등 프로그램 다채

충남의 대표 빵 축제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가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천안시는 4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천안 68개 동네빵집에서 열린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사)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도시 브랜드 확산과 빵을 통한 농산물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동네빵집들은 축제 기간 동안 지역 농산물로 만든 빵을 할인 판매하고, 천안 딸기로 만든 우유와 흥타령쌀 증정 이벤트를 벌였다. 신선한 천안 딸기, 밀 등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빵들은 빠르게 소진되며 인기를 끌었다. 빵지순례, 베이킹 체험 프로그램 등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빵빵데이가 열린 천안 동네빵집.

빵지순례단 300팀(1000명)은 행사기간 동안 지역 빵집과 전통시장, 책방 등 천안 곳곳을 방문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후기를 올리며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이미지 확산에 기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백석문화대와 남양유업 등 대학과 기업들도 참여했다. 백석문화대는 행사 첫날인 27일 천안프렌즈 모형으로 만든 쿠키를 꾸미는

베이킹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천안프렌즈는 천안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캐릭터다.

시는 오는 10월에도 열리는 빵빵데이 축제 때는 참여업소를 확대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더 많은 방문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천안시



“18가지 약초로 장 담가요” 금산군 여성농업인교육 약초 이용 장류 만들기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된장, 간장, 고추장은 각자 전통·약초 이용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오는 12월 13일 맛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초 이용 장류 만들기 과정에서는 인삼, 백출, 황기를 비롯한 18가지 약초를 이용했으며 콩 선별에서부터 된장 담기, 청국장 만들기, 보리고추장 담그기 등을 실습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6일 금산군 교육생들이 진산면 들꽃민장에서 장류 만들기 과정의 일환으로 ‘장 가르기’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금산군

5월 가볼만한 곳에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관광공사 선정 ‘액티비티 여행’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의 ‘네트어드벤처’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5월 가볼만한 곳’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 테마는 ‘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으로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아슬아슬한 액티비티를 통해 생동감 있는 체험을 선사할 만한 여행지 5곳(▲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가평 브릿지쥬라인 ▲평창여름치마을 ▲부산광안리 SUP Zone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을 선정했다.

남당항 네트어드벤처는 전국 최초로 해안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시설로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색색의 다채로운 그물망 위를 마음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껏 뛰어다니며 부모와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재미와 추억을 쌓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네트 위를 뛰어오르다 보면 서해안의 빼어난 경관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어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으로 손꼽힌다.

남당항은 대하, 새조개 등 다양한 먹

거리 축제로 유명하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의 입과 눈을 사로잡는다.

네트어드벤처 인근에는 해양분수공원과 길이 170m의 트리아트 존도 구성돼 있어 볼거리와 먹거리 모두 만끽할 수 있다.

/홍성군

“올봄 장고향 실치 맛보러 오세요”

비타민A·오메가3 등 영양 풍부

봄을 맞아 당진 장고향에는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실치회를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봄철 별미이자 당진의 9미(味) 중 하

나인 실치는 흰배도라치 새끼로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며 석문면 장고향 마을에서 즐겨 먹었다.

실치는 성어인 배도라치로 성장하기 위해 깊은 바다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치잡이 철은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다.

실치를 활용한 음식에는 회무침, 된

장국, 실치 전, 튀김, 뱅어포 등이 있으며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특히 실치는 비타민A, 오메가3 등 풍부한 영양성분이 포함돼 있어 시력 저하를 방지하고 눈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당진시

가로림만에 주꾸미 자연 산란장 조성

피뿔고동 5만여개 로프 연결

서산시의 대표 수산자원인 주꾸미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진다.

서산시는 주꾸미의 재생산 향상을 위해 주요 서식지인 가로림만 해역에 자연 산란장을 조성했다.

주꾸미는 어업인들의 주 어획 대상종인 것은 물론,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인기 어종인 까닭에 충남 지역 생산량은 2010년 1431톤에서 2015년 1069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도 4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해 놓고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주꾸미 생산량 회복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고 1억 원을 들여 자연 산란장을 조성, 주꾸미가 알을 낳고 번식하게 될 피뿔고동 5만여개를 로프로 연결했다. 조성된 자연 산란장은 지역 어민과 함께 관리된다.

오는 11월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재활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세척·보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는 자연 산란장 조성으로 주꾸미 자원회복 효과를 거둬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산시

예당호 음악분수 운영시간 변경

9월까지 방문객 활동시간 맞춰

예산군은 예당호 음악분수와 레이저빔 영상쇼 운영시간을 이달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문객 활동 시간과 동선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음악분수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 5시, 8시, 9시 등 4차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2시, 5시, 7시, 8시, 9시 등 5차례 늘린다. 레이저빔 영상쇼는 오후 8시 30분부터 20분간 1회 운영한다.

예당호 음악분수와 레이저빔 영상쇼는 빛과 음악, 새롭게 조성된 수변 무대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어우러져 예당호를 아름답게 물들인다.

특히 음악분수는 대중음악, 트로트, 동요,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연주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한편 예당호 출렁다리는 기존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안전 점검으로 휴무한다.

/예산군

폐경 후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

공공의료원 칼럼

폐경이란 마지막 생리 후 1년 동안 생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평균 51세이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양이 폐경전의 1/10 수준으로 줄어든다. 줄어든 여성호르몬 때문에 폐경 후 여러 증상이 나타나며 초기 증상으로는 발한, 안면홍조, 불면, 정서불안 등이 있으며, 지속되면 비뇨생식기 위축이 와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렵고 폐경 후 골다공증이 발생한다.

폐경 후에도 건강한 일상을 누릴려면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는데 실보다 득이 훨씬 많아서 부인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유방암인데 2000년대 초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여성 대상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자궁적출여성)은 복용 후 7년까지 유방암 발생이 없었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요법(자궁이 있는 여성)은 복용 후 6년 뒤 위험이 증가했다. 이를 근거로 학회에서는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15년 정도 해도 유방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유방암 다음으로 걱정이 많은 것이 심장병이다. 한때 WHI(Women's health Initiative)에서 호르몬 요법을 오래한 여성에서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분석을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나이가 70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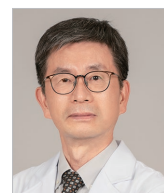
상의 여성이 호르몬 요법 시행 시 심장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여 요즘에는 60세 이전, 폐경된 지 10년 이내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며 15년 정도 지속할 경우 의사와 상의해 득실을 따져 복용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 자궁내막암이나 난소암, 대장암 등의 가능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다. 이에 대해 대한폐경학회는 대장암은 발생이 줄고 난소암이 증가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밤에 땀이 많이 나거나 우울증이 오는 등 폐경기의 일반적인 증상은 호르몬제를 복용하며 대부분 좋아지고 골다공증이나 골절 가능성도 줄어든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호르몬약을 언제, 어떻게 복용하느냐는 각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다르므로 약제에 따른 투여방법과 황체 호르몬의 성분과 다른 개인 맞춤요법을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최근 일부 업체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폐경증상 완화에 좋으며 판매하는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인체 내에 있는 에스트로겐은 화학구조가 스테로이드 구조인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대부분 비스테로이드 구조이므로 효과가 미미하다.



조승완
사상의료원 산부인과
진료부장

공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2025년 문 연다

올바른 입양·사육 문화 정착에 기여
지상 2층, 연면적 560㎡ 규모 건립

공주시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동물복지 의식 수준을 향상해 반려동물 입양 문화 및 바른 반려동물 사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센터는 총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성면 도천리 1-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약 560㎡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올가을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한다.

센터는 보호실과 격리실, 진료실, 미용 및 세탁실, 입양카페 등으로 각 영역을 명확히 하고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각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 보호실은 60두, 고양이 보호실은 20두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동물구조팀과 동물복지팀으로 조직을 꾸려 센터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설계공모(간이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전체적인 완성도 및 내부

공간구성이 탁월하며 볼륨의 분절을 통해 반려동물의 관점에서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원철 시장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에는 공주시농업기술센터와 농업화관 등 공공시설 부지에 동물보호소가 현재 운영 중이지만 동물보호와 관리 공간이 부족하고 진료 및 입양 상담 공간이 없는 등 전문화된 시설을 갖춘 동물보호 시설 건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주시



공주시 동물보호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 막바지 인파 북적
태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튤립꽃박람회 누적 관람객이 5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30일에도 많은 관람객이 찾아 260만 송이 튤립의 향연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부여군, 굿뜨래 농산물 안전성 확보

중금속, 유해 미생물, 잔류농약 등
무상 분석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부여군은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갖춰 굿뜨래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금속(수은, 납, 비소, 카드뮴), 유해 미생물(대장균군, 대장균, 일반세균) 분석을 위한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잔류농약 463 성분의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잔류농약 분석은 농산물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 실시하여 분석 결과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GAP 인증 기준에 적합한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를 추가로 마련했다.

GAP인증은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올해는 굿뜨래 푸드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과 업체류 농산물을 중심으로 중금속과 유해 미생물 분석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1700점의 잔류농약, 중금속과 유해 미생물을 분석할 계획이다”라며 “건당 25만 원의 분석 비용을 무상 지원하여 6억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여군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을 충남 명소



③ 충남에서 즐기는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부의 날(21일)이 몰려 있다. 또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가정의 달’은 1993년 UN이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세계 가정의 날’ 행사를 시작했다.

5월은 또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면서 여행하기 좋은 달이다. 특히 제철

먹거리가 풍성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와, 부모와,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가정 좋은 충남 명소’를 추천한다.

먼저 자녀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으로는 태안 안면도 주라기박물관, 아산 퍼스트빌리지공룡월드를 추천한다. 주라기박물관은 국내 최대의 공룡진품화석을 보유한 박물관으로 2011년 개장한 서해안의 대표 공룡박물관이다.

아산 퍼스트빌리지공룡월드는 키즈카페와 실내놀이터를 겸한 곳으로 600평 규모의 공룡월드에는 40m 크기의 로보공룡과 공룡워킹쇼, 화석 및 조형물 등 공룡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충남에는 동물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많다. 천안의 포니벨라, 주주피아를 비롯해 서산 정글카페와 벅스 앤미, 공주 노라쥬, 예산 아그로랜드, 홍성 아기새농장, 보령 바독이네동물원도 딱 이맘때 가기 좋은 곳이다.

기온상승으로 5월에도 물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은 만큼 키즈풀빌라(천안 오시유, 천안 반딧불이키즈풀빌라, 태안 상상키즈펜션, 공주 키도펜션, 논산 피드빌레타파크, 보령 JP 하우스, 청양 수미스테이)를 찾아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부모님을 모시기 좋은 곳도 많다. 우선 태안 코리아플라워파크에서는 세계튤립꽃박람회가 열린다. 빨간

색, 보라색, 자주색, 노란색, 하얀색 등 다채로운 컬러의 튤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충남에는 온천도 많다.

아산시 온양온천은 문헌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다. 도심과 가까워 온천과 숙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신정호관광단지, 현충사, 외암민속마을 등이 있어 1박 2일 정도 여행하기에 좋은 코스다. 인근 도고온천도 마찬가지다.

덕산온천은 1917년 개장됐다. 천연 중탄산나트륨 온천으로 ‘기적의 치료제’라는 게르마늄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육통, 관절염, 신경통, 혈관순환촉진, 피하지방 제거와 세포



충남관광캐릭터 워디가디

재생을 촉진시켜 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여행까지 모시기엔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충남의 색깔이 담겨 있는 지역특산물로 구성된 서천의 한산소곡주, 계룡의 백일주, 당진의 면천주를 선물해도 좋을 듯하고, 광천의 김선물세트, 논산의 딸기, 금산의 홍삼세트도 추천할 만하다.

/관광진흥과 041-635-3884
/충남문화관광재단 041-630-2970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아산 피나클랜드 불꽃축제
일시 2024.03.23.(토)~05.25.(토)
장소 아산 피나클랜드

2024 피나클랜드 불꽃축제
2024 AUTUMN PINNACLE LAND FIREWORKS FESTIVAL
아산 피나클랜드 밤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불꽃축제

2024.03.23(토) - 05.25(토)
매주 토요일 8시

일련의 가장 상쾌하고 시원한 밤하늘의 장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041-441-2782 www.pinnacleland.co.kr @pinnacle_land

튤립 수선화
버블쇼
역만송이
마술 공연

충청수영의 밤, 빛으로 부활하다!
보령 문화유산야행
일시 2024.05.17.(금)~05.19.(일)
장소 충청수영성 일원

2024 보령 문화유산 야행
별빛 달빛 축제수영
2024. 5. 17.(금) - 5. 19.(일)
충청수영성 일원

충청수영성
성문개장식
달빛향연
초롱등만들기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천안 K-컬처 박람회
일시 2024.05.22.(수)~05.26.(일)
장소 천안 독립기념관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CHEONAN K-CULTURE EXPO 2024
2024. 5. 22(수) - 26(일) 독립기념관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인다.

K-웹툰관
K-뷰티관
프린지무대
블랙이글스 에어쇼

충남의 종가

5)논산 파평윤씨 문성공파 윤증 종가



윤증 고택 전경.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호서지방 3대 명문가...270년 이어온 장맛 일품

논산 파평윤씨의 정착과 번성

논산시 노성면과 광석면, 연무읍 일원에는 파평 윤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논산 파평 윤씨는 1550년경 윤돈(尹墩, 1519~1577)이 문화 류씨 류연의 둘째 딸과 결혼하여 처가가 있는 득윤면(현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논산지역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윤돈의 아들 윤창세(尹昌世, 1543~1593)가 외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어 이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아 노성면 병사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였다.

윤창세는 설봉공 윤수, 문정공 윤환, 충헌공 윤전, 서윤공 윤흠, 전부공 윤희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 계파를 ‘노종 오방파’라고 부른다. 노종 오방파는 논산 노성면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연산의 광산김씨, 회덕의 은진송씨와 아울러 호서지방의 3대 명문가로 지목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호서 사림을 대표하는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시남 유계와 함께 ‘충청 5현’의 한 사람인 윤선거(尹宣擧, 1610~1669), 소론의 영수인 윤증(尹拯, 1629~1714) 등 많은 명현을 배출하였다.

한편, 노종 오방파 중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가계는 문정공 윤환의 직계이다. 윤환(尹煥, 1571~1639)은 대사간(감사원장)·동부승지(민정수석)·이조참의(행정안전부 차관보) 등을 역임한 인물로, 윤환의 아래에서 윤훈거·윤순거·윤문거·윤선거 등이 배출되었다.

조선 후기 백의정승 윤증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은 윤선거의 장남으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며 예학자이다. 일찍이 벼슬에 대한 뜻을 버리고 과거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평생 학문을 연마하여 백의정승이라고 불린다. 실제로 숙종이 이조참판(행정안전부 차관)과 공조판서(국토건설부장관), 우의정(국무총리급) 등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모두 사양하여 왕이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왕을 직접 보지 않고도 재상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오직 윤증뿐이었다.

직접 관직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상소와 편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으며, 백의정승으로서 그를 지지하는 선비들에 의해 소론의 영수로 추대되어 정국을 이끌었다.

문중교육과 종학당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공립으로는 성균관과 향교, 사립으로는 서원과 서당이 있었다. 그런데 유력 사대부가에서는 과의 형식의 사교육을 주로 하였



종녀 윤경남씨와 종가음식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명재고택

으며, 파평윤씨 노종파의 경우 자녀들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문중 서당인 종학당을 세웠다. 종학당은 노성 파평윤씨 문중 자제와 내외 친척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과거 준비와 강학, 학문 토론 등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은 윤순거(尹舜擧, 1596~1668)가 동생인 윤원거, 윤선거와 함께 종약과 가훈을 제정하고 1628년에 설립하였다. 종약에는 종학당의 교육 지침과 운영에 관련하여 “약 10세 이상의 자제를 모두 한 당에 모아서 스승을 세우고 글을 외우게 하고 읽게 한다. 학업과 학예를 갈고 닦게 하여 반드시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종학당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윤증이 3대 학장에 부임하면서부터이다. 윤증은 교육과정인 「초학획일지도」(1680)와 학문의 방법인 「위학지방도」(1701)를 제정해 종학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였다. 초학획일지도에는 일용(하루에 할 일)·야매(밤에 잠자는 것)·지신(몸가짐의 방법)·사물(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독서지서(독서의 순서)·독서지법(독서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학지방도에는 종학당의 교육 목표가 잘 드러



종손 윤완식씨가 명재고택을 소개하고 있다. /명재고택

러는데, 뜻을 세우고 항상 공경하는 자세를 실천하여 덕성을 함양하고, 강학과 자기 성찰을 행하여 도학공부가 실질에 힘을 쓸 것을 당부하였다. 이처럼 파평윤씨 노종파가 명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종학당에서 이루어진 체계적인 교육에 힘입은 바가 컸다. 파평윤씨 노종파 문과급제자는 총 46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종학당에서 배출되었으며, 17세기 초반 호서지역을 대표하는 문중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에도 교육 및 체험의 장소로 활용하는 등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제사는 엄정하되 간소하게”

윤증 선생의 “제사는 엄정하되 간소하게 하라”는 유지에 따라 이후부터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간소하게 치러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이미 제사날을 양력으로 준수해 오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매년 3월 16일 기제사,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제를 지낸다. 윤증의 유언에 따라 제사상차림은 매우

간소한데, 대추·밤·감 등 3색의 과일 외 다른 과일이나 과자류를 일절 올리지 않고, 나물도 한 접시에 3색 나물을 한 번에 담아 놓는다. 어물인 조기는 단 한 토막만을 목기에 올려 쏘든다. 윤증 종가 음식은 대부분 ‘교동전독간장’으로 간을 한다. 전독의 ‘독’은 향아리를 의미하고, ‘전’은 종부 대대로 전해 내려온다는 뜻으로 일종의 씨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손 윤완식씨의 누이인 윤경남씨에 따르면 27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한다. 이 특별한 장맛을 이어온 음식으로 떡전골·장김치·가지김치·노성계장·갯잎장아찌·청태자반 등이 유명하다.

명재고택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재 파평윤씨 문성공파 윤증종가의 12대 종손은 윤완식(1956~)씨이다. 윤완식씨는 평소 종가문화와 고택 보존·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옥체험업협회·충청종가협의회·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한국종가유네스코등재추진협의회·문화재돌봄센터 등 종가문화 및 지역문화재 관련 비영리단체에서 대표 또는 주요 임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윤증고택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국가유산청(문화재청)에서 후원하는 ‘고택·종가집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옥스테이, 인장만들기, 종가음식 만들기, 풍류음악회, 전통혼례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2022년부터 고택 사랑채 앞마당에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명재고택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누리집(<http://www.myeongjae.com>) 및 예약(☎041-735-1215)을 통해 가능하다.

/서홍석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교문화연구부장



주요인물 생몰년도	
인물	특이사향, 활동
윤돈(尹墩, 1519~1577)	입향조, 좌승지
윤창세(尹昌世, 1543~1593)	임진왜란 의병장
윤환(尹煥, 1571~1639)	대사간, 대사성, 동부승지
윤순거(尹舜擧, 1596~1668)	의령현감, 공조정랑, 상의원정, 종학당 창설·초대 학장
윤선거(尹宣擧, 1610~1669)	충청 5현
윤증(尹拯, 1629~1714)	소론의 영수

▶윤증 초상(이명기 신법), 1788.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광은 충남, 충남은 관광.

**300미터 앞에
형통 보호 구간입니다.
젊은 날을 기념하세요.**

K-컬처 박람회

K-스피릿을 담은 최초의 한류 문화엑스포
기간 2024. 5. 22. ~ 5. 26.
장소 천안 독립기념관 일원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IoT, 드론, VR, AI 등 최신 기술 체험을 통한
미래 사회 체험 및 진로탐색 및
미래사회 유망 직종 체험 등
기간 2024. 5. 23. ~ 5. 25.
장소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속도감 있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 보령 AMC 국제 모터페스티벌

튜닝카 전시부터 집카나, 드리프트 대회까지
기간 2024. 5. 4. ~ 5. 6.
장소 보령 머드엑스포광장 일원

**잠시후, 성웅 이순신의
음결에 진입합니다.**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탄신)

백의종군길 전국 마라톤 대회, 충무공배 노젓기 대회
기간 2024. 4. 24. ~ 4. 28.
장소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전방에 맛집 집합
구간입니다.
과식에 유의하세요!**

천안 베리베리 빵빵데이

빵의 도시 천안에서 빵지순례
기간 2024. 4. 27. ~ 4. 28.
장소 빵의 도시 천안

서천 장항항 골갑축제

골독, 갑오징어잡기 체험 및 요리 장터 등
기간 2024. 5. 19. ~ 5. 28.
장소 서천군 장항항 일원

**500미터 앞에 토포자 전용
등산 명소가 있습니다.
관광, 경관, 건강셋 다 챙기세요.**

계통 향적산 종평저수지→귀룡정사→산제당→기도터→고스락
청양 칠갑산 칠갑산 장승축제 (4월 20일 ~ 21일)
공주 태화산 마곡사→은적암 입구→활인봉→주릉 갈림길→샘골
서산 일락산 개심사→조망대 삼거리→민머리봉→정상→셋고개→용현휴양림→삼존마애불

**잠시 후, 충남의
일품 축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면천읍성-진달래 민속 축제

영랑의 효 정신과 함께하는 진달래 축제
기간 2024. 4. 20. ~ 4. 21.
장소 면천읍성 일원

석장리 구석기 축제

석장(Re(리) 1964, 구석기 세계로!
기간 2024. 5. 3. ~ 5. 6.
장소 공주 석장리박물관

충남에 도착하였습니다...만!
안내를 종료하지 않겠습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까지
안내를 지속합니다.**



멋진 충남도민의 삶을 설계하기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Q & A

2023년 충남사회조사에 의하면 충남도민의 삶에 만족도가 하락한 항목은 ‘가족관계’, ‘소득’, ‘여가활동’ 분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가족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가족 관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 현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 ‘가족관계 만족도’란 무엇일까? 충남의 ‘가족관계 만족도’ 어떻게 나타날까?

A.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높은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보여주고 나아가 가족생활의 질적인 수준을 알 수 있고 자신의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로서 지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는 10점 평균으로 측정할 때, 2022년 7.81점에서 2023년 7.76점으로 0.05점 소폭 하락했으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8.28점)가 가장 높고 배우자(7.99점), 자기 부모(7.98점) 순으로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처럼 삶의 질과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만족도’는 성별·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A. 남성이 5점 평균 4.09점, 여성이 4.07점으로 전국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4.32점, 15~19세 4.26점, 30대 4.18점, 40대 및 50대 4.0점, 60세 이상 3.98점으로 나타납니다. 연도별 기준 차이는 있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고 전국과 달리 20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한편,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젠더 퀴즈

다음의 글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X 표시하십시오.

- 충남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영역은 ‘가족관계’, ‘소득’, ‘여가활동’ 영역이다. ()
- 충남 도민들 가운데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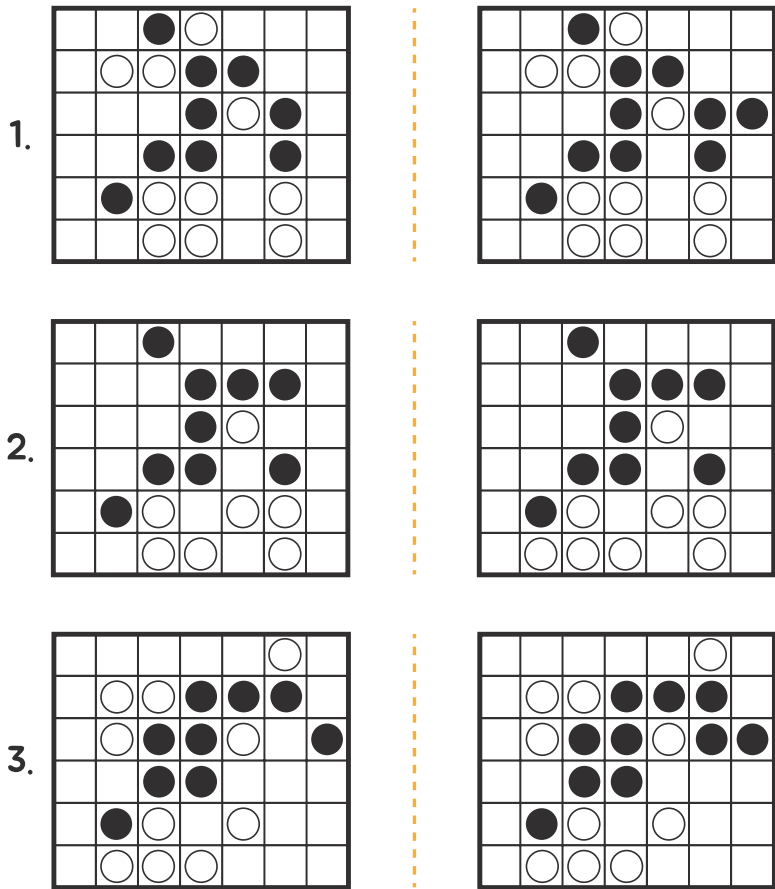
※안세아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팀 연구위원
참고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충청남도 「충남사회조사」,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3」)

X 'O' 'I' : 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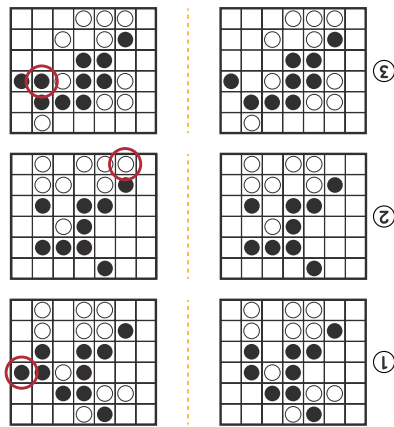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양쪽의 바둑판에 놓여진 바둑알의 위치가 다른 한 곳을 찾아 O표 해보세요.



출처 / 한국치매예방협회 위드실버



정답 : 1. 10점, 2. 10점, 3. 10점

일자리 정보

※문의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04-1421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주)한솔일렉트로닉스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	041-564-5974	연 4,000만원	논산	(주)휴엠앤씨	제조 단순 종사원	4	070-4066-0041	월 320만원
천안	(주)그랜드우성	생산·품질 사무원	1	041-621-8070	월 300만원	논산	(주)와이앤비푸드	창고 관리원	1	041-745-7841	월 230만원
천안	(주)에이치제이테크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조작원	1	010-8468-5963	월 350만원	보령	대일전선(주)	생산·품질 사무원	1	041-932-9030	연 3,200만원
천안	(주)아림공조	제조 단순 종사원	2	041-415-2515	연 2,900만원	보령	(주)건양	공작기계 설치·정비원	1	041-931-9911	월 260만원
아산	(주)제이앤지	자재·구매 사무원	1	041-545-0637	연 3,000만원	보령	(주)명일종합건설	경리 사무원(건설)	1	041-936-8778	월 250만원
아산	(주)무진씨앤티	머시닝센터조작원	2	041-417-6325	연 4,200만원	보령	(주)정토환경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	1	041-551-2121	월 300만원
아산	(주)엔에스타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1	041-425-0440	연 3,600만원	계룡	(주)오광	온라인 판매원	1	042-638-0520	연 3,600만원
아산	(주)예성철강	생산·품질 사무원	1	041-424-7667	연 3,600만원	계룡	효성요양원	간호조무사	1	042-841-4800	월 227만원
당진	(주)반석기업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원	2	041-353-2629	월 250만원	홍성	(주)은성전장	생산·품질 사무원	1	041-631-9902	연 3,000만원
당진	(주)프라이테크	생산·품질 사무원	1	041-910-1313	연 3,600만원	홍성	(주)홍성브레이크	총무 및 일반 사무원		041-630-2508	연 3,000만원
당진	(주)메탈스틸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1	041-430-7710	연 3,000만원	예산	(주)대양금속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1	041-404-1040	연 3,900만원
당진	에코리빙(주)	자재·구매 사무원	1	041-352-8927	연 3,500만원	예산	에이치피코리아(주)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	041-338-0703	월 220만원
서산	(주)시스턴	자재·구매 사무원	1	041-664-5410	월 260만원	태안	(주)신흥기공	발전기 설치·정비원	2	010-2715-5645	연 3,400만원
서산	(주)한국메탈 서산공장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1	041-669-8030	월 270만원	태안	(주)유성엔에이	경리 사무원	1	041-674-0717	월 230만원
서산	서해그린환경(주)	화학·환경·에너지 분야 단순 종사원	1	041-429-3050	연 3,500만원	서천	유한회사 태지	지계차 운전원	3	041-955-1761	연 3,800만원
서산	(주)신성텍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1	010-4918-3612	연 3,000만원	서천	(주)일광폴리머서천공장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	010-6796-0679	연 4,500만원
공주	(주)상지골재산업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	1	041-856-0037	월 270만원	부여	(주)비에스부여공장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	041-836-1045	연 3,600만원
공주	(주)참조은에스에프	자재·구매 사무원	2	041-852-5525	연 3,000만원	부여	대한폴리텍(주)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	070-4348-2248	연 2,800만원
공주	(주)한남하이텍	화학·환경·에너지 분야 단순 종사원	7	041-881-0331	월 270만원	금산	(주)가온	제조 단순 종사원	2	041-752-9953	연 3,000만원
공주	의료법인태인의료재단	간호사	1	041-851-7607	월 340만원	금산	(주)포엠	머시닝센터조작원	1	041-751-6111	연 4,500만원
논산	농업회사법인 상경에프앤비(주)	경리 사무원	1	041-742-3311	월 230만원	청양	경산종합건설합자회사	토목안전·환경·품질 기술자	2	041-942-8771	월 500만원
논산	(주)다온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	041-733-1634	연 3,000만원	청양	건축사무소이광	사무 보조원	1	041-944-0166	월 207만원

150평에서 3000평으로...고구마 농사 '대박' 났네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대호팜 대표 박상욱

자율트랙터·드론 활용 기계화로 효율성 높여
“MBTI 직업 찾듯 성향에 맞는 작물 찾아야”
우수 품질 위한 공부해야...고객 대응도 중요



벼 농사를 짓던 농부가 고구마로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해 수확한 고구마는 모두 매진됐다.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에서 벼·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대호팜 대표 박상욱(32)씨를 만나 비결을 들었다.

박씨는 “브랜드 파워를 판매에 적극 활용했다”라며 “당진 고구마 명성 덕분에 온라인 판매가 예상을 훨씬 웃돌아 초장기부터 완판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판매는 고객 리뷰가 중요한데, 평점 5점 만점에 4.6점을 유지하면서 단골이 늘고 소비자와 신뢰를 차곡차곡 쌓았다”고 설명했다.

고구마 농사가 대박을 터뜨리며 150평 규모로 시작한 고구마 재배면적은 현재 3000평까지 늘었다.

대학에서 농업자원경제학을 전공한 박 대표는 대학 졸업 후 벼 농사일을 하는 어머니를 도우며 2016년부터 농사일에 뛰어들었고 수확 시기가 겹치는 고구마 농사를 병행한 것이 ‘신의 한수’가 됐다.

2만평 규모의 벼 농사도 짓고 있는 박씨는 현재 생산품 대부분을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해 수익률을 높였다.

벼 농사는 노동력 절감 및 소득 증대 차원에서 기계화했다. 자율주행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다양한 자율주행 농기계장비를 보유 중이며, 씨뿌리기와 방제를 위한 드론도 있다. 자율주행트랙터로 땅



박상욱 청년농부가 고구마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최현진

을 평평하게 만들고 이앙기를 사용해 모내기 작업을, 작물을 수확한다.

박씨는 “전과정을 로봇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효율성은 높아졌다. 영농 기계화는 국비 지원을 받아 가능했다”면서 “귀농 후 대학시절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은 물론, 4-H 활동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작물재배 경험을 듣고 배웠다”고 말했다.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tip으로는 “성향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벼와 고구마는 수확시기가 정해져 있다. 농번기 열심히 일하고 농한기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실제 여름철 지역 청년농업인들과 드론 활용 방제 작업 등을 하고 있다”면서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민들과 소통이 중요하다. 먼저 다가가고 교류하며 맞춰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박씨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1차

산업인 농사에서 장기적으로는 농촌 관광사업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농장 자원을 활용해 체험프로그램과 팜스테이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는 “농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위험부담이 적고,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온다”며 “어렵고 힘들지만 식량안보에 기여한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황도 봉기풍어제·대목장 전승 맥 잇는다

충남 무형문화재 보유자
박부국·송찬의 씨 인정

충남도는 4월 26일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황도 봉기풍어제와 대목장’ 보유자로 각각 박부국(80·태안군), 송찬의(72·청양군) 씨를 인정했다.

황도 봉기풍어제는 황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여러 사고를 막고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 제사로, 매년 음력 정월 초이틀과 초사흘에 치러진다.

도는 황도 봉기풍어제가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박부국



박부국 씨



송찬의 씨

씨를 도와 봉기풍어제의 전승과 교육을 담당할 전승교육사로 강도규·강승수·오재수 씨를 인정했다.

대목장은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집을 짓는 전 과정의 책임을 지는 장인을 일컫는 말로, 1982년에 대목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신응수, 전흥수, 최기영 씨 등 충남 출신 보유자가 3명이나 배출될 만큼 대목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도는 1990년 도 무형문화재로 ‘서천 대목장’ 보유자 정영진 씨를 인정했으며, 정 보유자가 2011년 사망한 후 2019년 장운진(71·서산시) 씨를 인정해 대목장의 맥을 잇고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장 보유자에 이어 인정받게 된 송찬의 씨는 40여 년간 목수로 활동하며 창덕궁 규장각, 종묘 정전 등 국보급 문화재 복원 및 보수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송 씨의 보유자 인정으로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수의 대목장 보유자를 인정하게 됐다.

/문화유산과 041-635-3914



‘태안 서해랑길 완주 원정대’ 발대식

10월 말까지 188km 11개 코스 완주

태안군의 아름다운 걷기길을 널리 알리기 위한 ‘태안 서해랑길 완주 원정대’가 27일 발대식을 갖고 6개월 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군은 이날 군청 대강당에서 가세로 군수와 완주원정대 및 힐링걷기 참가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태안 서해랑길(코리아둘레길) 완주원정대 및 힐링걷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태안 서해랑길 완주 원정대는 태안의 걷기길을 홍보하고 서해랑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해랑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산책로를 이어 조성한 ‘코리아둘레길’ 중 서해안을 따라 조성했다. 태안 권

역은 남면 당암리에서 서산시 팔봉면 구도항에 이르는 188km 11개 코스가 조성돼 있다.

11개 코스를 모두 완주하는 ‘완주 원정대’ 및 1개 코스를 선택해 걷는 ‘힐링걷기’로 나눠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완주 원정대 59명, 힐링걷기 22명 등 모두 81명이 신청해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참가자들은 4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1개 코스를 완주하게되며, 군은 코스별 기념 배지를 제작하고 구급약과 마스크, 생수 등을 구비했다.

‘스탬프 투어’와도 연계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완주자에게 완주증명서 및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태안군

삼교고 이우진·임준혁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발탁

5월중 태국서 열리는 세계대회 출전

예산 삼교고등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이 3월 말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제35회 전국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를 통해 청소년(U-19)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임준혁, 이우진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삼교고 세팍타크로부 이우진(왼쪽), 임준혁 선수.

삼교고 세팍타크로부는 이번 대회에서 두 선수와 함께 3학년 서형욱(주장), 동급생 박진영, 후배 김상준 군과 호흡을 맞춰 출전한 쿼드(4인)에서 우승하고 레구(3인)에서 준우승을 거머

쥐었다. 현재 세팍타크로 일반부 국가대표 선수 8명 가운데 삼교고 출신이 5명이 포함돼 있는 등 삼교고는 1998년 전국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먼저 세팍타크로부를 창단한 이 부문 최강

자이다.

현재 이인재 감독과 오대연(27·삼교고 39회) 코치 지도 아래 5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다.

이우진, 임준혁 선수는 5월 중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세팍타크로 대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녔으며 내포중학교 3학년 때 삼교고 선배 선수들의 세팍타크로 훈련 장면에 매료돼 입문했다.

/무한정보신문 황동환 기자

충남도청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문화창조의 요람, 충남

내포칼럼



최혜진
목원대 교수

충청지역 메가시티론은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을 묶어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 문화권으로 도약하겠다는 정책 제안이다. 중원에 있지만 서울 경기나 전라도 경상도에 비해 무언가 늘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차에 무척 선도적인 발상이라고 느껴진다. 충청도는 대한민국 중간에 있으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모두 접변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역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흘러들어오기도 하고 흘러나가는 통로이자 허브 구실을 했던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충남은 예로부터 문화창조의 요람 구실을 하였다.

충청도는 조선시대만 해도 팔도 문화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임금이 있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포구나 평야 등 물산이 풍부하고, 언제든 서울로 급히 갈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지금으로 치면 전국예술인총연합회 회장쯤 되는 역할은 충청도 예술인들이 맡았고, 전국의 예술문화를 리드하는 입장에 있었다.

서울에서 과거시험이 있을 라치면 전국의 광대들이 당시 충청감영이 있었던 공주에 모여 소리과거를 치르는 전통이 있었고, 일류 광대를 선발하여 궁중에 보내는 일도 충청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판소리는 바로 충청도 양반들로부터 시작된 국민장르다. 판소리는 애초 각 지역의 이야기를 재담과 노래를 섞어 하던 장르였으나, 18세기 결성 지역의 최선달(최예운, 1726-1805)과 목천 지역의 하한담(생몰 미상)에 의해 예술적인 장르로 급부상했다. 최선달은 결성 석당산, 누에산, 형산 등지에서 소리를 연마하며 득음을 하고, 한양으로부터 온 관리의 눈에 띄어 어전에서 소리했으며, ‘가선대부’의 벼슬을 받았다. 소리를 해서 벼슬을 받은 최초의 사례다.

최선달이 소리를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오는 제자들을 가르치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던 하인이 도사에게 제발 손님쯤 그만 오게 해달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로 보아, 최선달이 당대에 이미 소리로 유명했고, 드디어 판소리의 정체성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전주신청에서 최선달과 하한담이 불렀던 〈춘향가〉는 금세 인기를 얻었고, 또다른 비가비(양반) 광대 권삼득이 그 뒤를 이어 판소리를 발전시켰다. 유명한 〈흥보가〉 중 ‘제비풀러 나간다’ 대목은 권삼

득이 만든 것이다.

결성에 최선달과 목천의 하한담이 최초의 판소리 명창이라는 점은 기록에 남아 있다. 하지만 이들이 부른 판소리 사설을 지은 사람은 별도로 있었다. 그가 바로 목천의 유진한(1712-1791)이다. 유진한은 목천지역의 양반가문에서 태어났고 문장이 뛰어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만 정치

“

충청도는 예로부터 문화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허브 역할을 한 곳
유네스코 문화유산 판소리는 충청도 양반들부터 시작된 국민장르
조선시대 최선달, 하한담, 유진한, 신광수 등 걸출한 소리꾼 배출

”

적 탄압으로 실각한 남인 가문이었다.

하지만 유진한은 최초의 〈춘향가〉를 지은 작가로 지금 판소리사의 첫머리에 올라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라. 유진한은 호남지방을 여행하며 들었던 춘향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당시 유행하던 이야기노래인 ‘타령’의 사설을 지었다. 그것이 〈가사춘향가〉인데, 이 〈춘향가〉는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 아쉽지만, 최선달 하한담을 통해 판소리 〈춘향가〉로 불리

어졌다. 양반과 기생의 사랑이야기로 기생 춘향이 이여사의 정실부인이 되어 정렬부인에 올랐다는 스토리를 최초로 만들었다. 또한 유진한은 충청지역 문사들 전체를 모아 시 경연대회를 성대하게 열었고 그 시회를 통해 충청지역 문화를 크게 진작시켰다.

유진한의 절친으로 서천의 신광수(1712-1775) 역시 내로라 하는 문장가

시 신광수에게 벼슬을 내렸다. 신광수는 영릉(효종대왕릉)의 참봉이 되어 여주에서 3년을 지내며, 당시 처음으로 ‘시조’를 불렀던 이세춘에게 시조 사설을 지어 주었다.

신광수는 이보다 앞서 과거시험에서 2등했던 시가 평양 교방에서 노래로 불리워져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지금도 남아있는 서도창 〈관산옹마〉가 그것이다. 〈관산옹마〉는 평양 기생이 소리 시험을 볼 때 필수 작품이었을 정도로 중요했고, 당시 노래를 잘 불렀던 모란이 나중에 궁중에 잔치 참여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관산옹마〉의 작가이며, 시조 사설의 작가이기도 했던 신광수는 당대 일류 작사가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친구 채제공(1720-1799)이 평양감사로 부임했을 때 지어준 〈관서악부〉는 또다른 친구 강세황(1713-1791)이 친필로 기록을 남겨줄 정도로 명작이었다.

특히 충남지역에서 발전한 문화의 바람은 18세기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다. 최선달, 하한담, 유진한, 신광수 등 예술인과 문화인들이 함께 만들어 낸 당시 예술문화는 충청을 넘어 전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들이 만든 판소리는 지금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다. 문화창조의 요람이었던 충남이 중교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잎 색깔 세 번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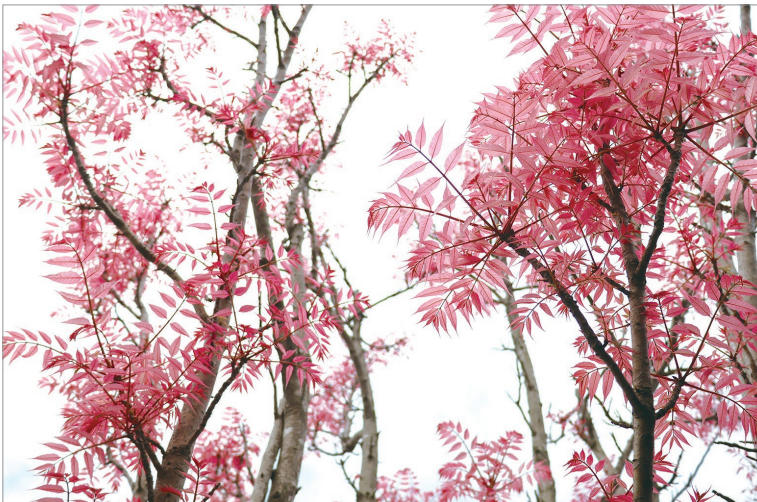
식물이야기

삼색참죽나무

꽃보다 잎이 아름다운 계절이다. 봄을 지나며 나무가 만들어 내는 잎은 각각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다. 잎이 아름다운 식물 중에서 요즘 으뜸인 나무를 꼽자면 바로 삼색참죽나무이다. 수목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무슨 나무예요?”, “살아 있는 것 같아요?”라고 물어볼만큼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 ‘삼색’ + ‘참죽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봄부터 여름까지 잎의 색이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순으로 세 번 바뀌어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붉게 올라온 새잎의 모양도 깃털을 연상케하는 이색적인 모양이다. 잎이 나오고 나서 보면 마치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품종명으로 부르는 ‘플라밍고(Flamingo)’는 이 붉은 잎이 홍학이라고 불리는 플라밍고의 깃털 색을 닮아 지어졌다. 화려하고 선명한 붉은 빛의 잎사귀는 햇살이 따뜻해지면 점점 열어지면서 노란빛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변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날이 더워지면서 초록빛의 잎으로 변한다. 그래서 피부색을 바꾸는 ‘카멜레온(Chameleon)’이라는 품종명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삼색참죽나무의 아름다운 변신은 유독 천리포수목원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똑같은 나무를 내륙이나 도시로 가져가 키워도 삼색의 변



천리포수목원의 삼색참죽나무. 천리포수목원의 입구정원과 큰언못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

■천리포수목원의 삼색참죽나무

1977년 7월 30일 뉴질랜드 던컨 & 데이비스(Duncan & Davis) 농장에서 모목으로 수목원에 도입되었다.

■삼색참죽나무의 생육환경

직립형으로 자라며, 서리에 강하고 양지를 좋아한다.

화가 사라지고, 바로 초록색 잎을 만들어 생육한다. 이는 바닷가에 위치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봄철 서늘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추측만 할뿐이며, 수목원의 정원사들은 “삼색참죽나무의 변화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의 마법”이라고 말하곤 한다.

1977년에 수목원에 도입된 삼색참죽나무는 사실 도입된 후 수년간 새순이 붉게 나오지 않고 처음부터 녹색으로 나와 당시 직원들의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

나 붉은 빛의 잎을 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천리포 지역에 적응하는데 나뭇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 삼색참죽나무의 변신을 지켜보는 것은 수목원가드너로서 크나큰 재미이며 매일 수목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인 것 같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의 특징을 가지고 자라나는 식물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기를 희망한다.

/천리포수목원 강희혁 연구원



김미희 어쩌다 마주친 폰카 시



우리 소원은 왜 끝이 없을까요?
숨을 쉬는 한 소원도 죽지 않겠지요.
조마조마 두근두근 간절하게 애절한 듯 욕심인 듯
숨어있던 소원들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색색 옷으로 치장하고 부처님을 뵙니다.
보세요. 이래도 소원 안 들어주실 건가요?
애교를 보냅니다.

연등

내 소원 들어주세요
부처님이 잘 보이게
불을 밝힙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소원이길 바랍니다



김미희
시인·동화작가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4일 2024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선정을 위하여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11건 선정

문화관광, 안전, 주민자치 등
지역현안 해결 위한 과제 제시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4월 24일 2024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선정을 위하여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이 제출한 2024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11건을 심의·선정했다.

이번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선정 과제들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주민자치, 기후·환경, 스마트농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과제는 구체적으로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 연구 용역(논산시를 중심으로)(대표의원 윤기형) ▲홍성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마련(대표의원 이종화)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효율적 운영 및 지원방안 연구(대표의원 윤희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대표의원 전익현)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대표의원 이현숙) ▲해수욕장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개선 방안 연구(대표의원 최광희) ▲이여령 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대표의원 김응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건강도시 발전-전인건강생활 프로그램(대표의원 이철수)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용역(대표의원 김민수)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 연구 용역(대표의원 유성재)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공 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안 연구(대표의원 김도훈)이다.

이완식 위원장(당진2)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 개발과 제안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또한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이번에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들은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이 함께 노력하여 보다 나은 충남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청 설립 최적의 요건 갖춘 충남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50만 명에 달한다. 체류 외국인은 2019년 252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202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21년 3.79%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 4.37%, 2023년 4.89%로 증가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혹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 주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한 전담기구는 부재했다. 단순히 ‘외국인 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범주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이민 2세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외국인 정책이나 업무는 부처별로 쪼개져 있다. 법무부가 체류 관리 등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정착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다문화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외국인 고용 허가는 고용노동부가, 국제교육 등 학교 정책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식이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주민들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부처 간 유사·중복 업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민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마침 법무부가 지난해 말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하고,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청을 유지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충남 또한 천안·아산에 이민청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지난해 7월 이민청 설치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2022년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전국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고,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천안·아산은 외국인 주민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우며, 교통 접근성이 좋아 입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서울, 과천, 대전, 세종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안·아산에는 12개 대학을 비롯해 자동차·디스플레이·바이오 등의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어 외국인 교육과 일자리 매칭에 있어서도 장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충남의 이민청 유치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상징성을 가질 것이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도 외국인 주민들이 정착해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충남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민청의 천안·아산 설립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다음아트홀 ‘고승현 섬유미술전’ 개최

5월 31일까지 22개 작품 선보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다음아트홀에서 ‘고승현’ 작가의 개인전 ‘고승현 섬유미술전 2024’를 개최한다.

고승현 작가는 대학에서 섬유미술을 전공하고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서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술 단체인 아라메조형예술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매년 정기전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작가에게 섬유는 어린 시절 뽕잎 따서 누에치고, 모시 베어 길쌈하고, 목화솜을 따다 딸들 시집갈 때 이불 만들고, 삼베 저고리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로 조각보를 만들어 쓰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도 같다. 이처럼 친

숙한 소재인 섬유를 사용하여 작가는 고향의 풍경들을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타피스트리, 청바지 염색 등 섬유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용비지의 봄〉, 〈산수저수지의 여름〉 등의 타피스트리 작품은 실들을 한 줄 한 줄 쌓아 올리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또한 버려지는 청바지를 염색한 작품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직물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저마다의 추억 속에 잠들어 있던 마음 속 따뜻한 풍경들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5월 1일부터

충청남도 질병관리청

“경제”에서 “관심”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경제’ → ‘관심’ 하향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 (경제)	변경 (관심)
1 방역조치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2 의료지원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원 →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 • 응급실 내원환자 •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 응급실 내원 중증 응급·분만 환자 • 고위험 입원환자 • 감염취약시설입원환자·입소자	PCR 0원 →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 종전과 동일
	• 보호자·간병인	PCR 0원 →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 외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 무상공급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 전 국민 무료접종	→ 유지 (*23~24월까지)
3 감시·대응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도의원·공인회계사·세무사 등 13명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충남도의회 윤희선(태안1)·신영호(서천2)·김민수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예산회계전문가 등 총 13명이 선임됐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시회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이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약 1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검사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결산 검사는 우리 충남도의 건전한 재



충남도의회는 2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충남의 미래를 계획하는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연구모임

공공건축물 부문 탄소 감축 대응 방안 필요

김도훈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한 연구모임’이 4월 25일 충남직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사진〉

연구모임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따라 공공건축물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 도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광역 17개 자치단체 중 전국 8위로, 15년 이상 건축



물이 전체 건축물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후화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공공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찾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정규모학교 운용 방안 마련

박미옥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는 30일 공주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의원과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모임’의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연구모임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적정규모학교육성 기금 운영 가능 범위 확대 연구 등을 위해 결성됐다.

박미옥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공주교육지원청 선우인영 행정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고광철 충남도의원(공주1), 이범수 공주시의원, 교사, 학부모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박미옥 의원은 “소규모 학교들이 인구 감소와 출생률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통폐합이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모색

신순옥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는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제공 및 학령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4월 30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농촌유학시범학교 활성화 연구모임’의 발족식을 갖고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사진〉

연구모임은 ▲농촌유학 시범학교 추진 현황 및 환경 분석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순옥 의원은 “농촌유학은 지역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수도권 학생에게 생태 감수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쇼핑약자’ 정책연구 돌입

이연희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은 2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농어촌 지역 쇼핑약자의 현황과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쇼핑약자 지원 방안 및 복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이 연구모임 대표를, 내포시대 박두용 편집국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서산시의회 조동



식 의원, 한서대학교 이창식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 농어촌 지역 쇼핑약자들의 복지 수준 향상 및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지역민원상담소 기능과 역할

- 양방향 소통을 위한 현장창구!**
충남도민의 고통 민원 상담, 입법 정책건의 등 도민 의견수렴
- 의정활동 자료 수집의 장!**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시 수렴된 도민의견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테이블!**
충남도민, 공무원, 각종단체 등이 상담관과 지역발전을 논의
- 스마트 원격 사무공간!**
도의원 원격지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의정활동 거점

지역민원상담소 현황

구분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천안1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15, 3층	041-554-0008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45, 401호	041-566-3702
	천안시 서북구	미라 16길 14	041-574-0007
공주	공주시 백미고을길	17-12, 2층	041-855-2242
보령	보령시 한내로	터리길 45, 2층	041-936-5388
아산1	아산시 외암로	1544-3, 2층	041-547-5927
아산2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221, 2층	041-546-1101
서산	서산시 고운로	153, 2층	041-665-1235
논산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041-734-0064
계룡	계룡시 서금암로	17, 2층	042-840-5719
	당진시 시청2로	18, 2층	041-358-3250
금산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3, 2층	041-751-5555
부여	부여군 부여읍	부장대로 28, 2층	041-835-3330
서천	서천군 서천로	157-1, 2층	041-952-1650
청양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4길 37, 301호	041-943-0613
홍성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132 C동 201호	041-633-2333
예산	예산군 예산읍	군청1길20, 6층	041-333-9606
태안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61, 1층	041-675-0313

※각 지역별 상담소의 운영시간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지역민원상담소 ▶ 지역민원상담소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내 고향 충남을 살리는 아주 특별한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향으로 거듭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민복지
사업시행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

PC/모바일에서 기부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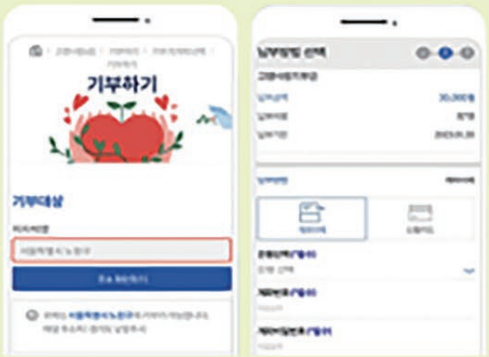
- 홈페이지 주소 : 고향사랑e음.메인 (ilovegohyang.go.kr)
- 시스템 문의 : 운영지원단 (☎1522-2431)

회원가입



- 1 우측 상단 회원 가입 클릭
- 2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 3 회원가입 완료

기부하기



- 1 로그인 후 고향사랑기부하기 클릭
- 2 기부지자체 선택
- 3 기부가능여부 확인(기부자 주소지 확인)
- 4 기부금액 입력
- 5 답례품 제공여부 확인
- 6 기부금 납부하기

보령시 답례품



3대째 보령쌀 10kg



누룽지과자



달래김



대천바다 금빛&은빛



된장고추장



만세보령쌀 향진주10kg



만세보령주



명품한돈구이세트



보령대천김 맥주안주세트



산나물



우드시크릿키링



자연산합복 대하장



해조아트공예



전통된장고추장
선물세트



키조개
관자 슬라이스